



3면

민주 이낙연 대표 "공수처 출범 시기 놓치지 않을 것"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음 8월 8일)

제262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댐 방류 홍수피해 대책 마련을”

도, 수공·환경부 건의...시군 공동대응 귀추 주목
피해 원인 조기 규명·실태 파악·복구 지원 등 촉구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홍수피해에 대해 23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와 24일 환경부를 연이어 방문, '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에서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사유, 공공시설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댐 하류 지역의 피해원인이 댐 방류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라는 의견이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8월 10일 홍수피해 이후 현재까지 피해원인에 대한 규명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어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원인규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피해조사 외에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자체적인 실태조사나 복구지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울러 재산피해 외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8일 총 23명으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댐 운영의 적정성과 하류 홍수상황 조사, 댐관리 개선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광역도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해당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귀추도 주목된다.

섬진강댐 및 용담댐 홍수피해지역은 전북, 전남, 경남, 충북 등 4개 광역도와 남원, 순창, 임실, 구례, 곡성, 광안, 하동 등 7개 시군이 해당된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9월 3일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중한 사후조치 및 총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해임 촉구 결의문'을 대동량비서실장 대한민

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환경부장관에 송부한바 있다.

또한 전북도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피해조사 품목 외에 피해현황

을 별도 조사하기로 했다.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홍수피해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위원회 결정에 대비,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줄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피해조사 대상은 도내 4개 시군 17개 읍면의 1,580가구가 해당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9월 18일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을 완료했다. 피해액은 총 1,341억원이며 복구비는 피해액의 3.3배인 4,473억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우기전에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해당 시, 군과 공동으로 피해 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조사해 '댐 조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부기 제거 효능 탁월한 '늙은 호박'

늙은 호박은 부기를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다.

23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 재배지에서 직원들이 연구용으로 재배한 늙은 호박을 수확하고 있다. 죽이나 맥을 할 때 많이 이용되는 늙은 호박은 부기를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정광운 전북대 교수팀, 기능성 스마트 윈도우 개발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팀(고분자나노공학부)이 간단한 코팅 방법으로 편광 특성을 나타내면서도 전기화학적 자극에 감응해 색깔과 편광을 바꾸는 기능성 스마트 윈도우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교수팀은 펄펄하게 반응성 액정 분자를 이용해 우수한 편광 특성도 나타내고 산화-환원 자극에 따라 흡수 파장과 투과도를 가변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성 광학소재를 개발 이

를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이번 연구는 재료화학분야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미국화학회의 '케미스트리 오브 머티리얼즈(Chemistry of Materials)' 9월 22일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이 논문에서 연구팀은 기존에 상용되는 편광판보다 월등히 얇은 코팅형 편광판을 제조했으며 산화-환원 자극으로 정밀하게 흡수파장을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개발한 소재를 이용해 플렉서블 편광판 스마트 윈도우, 선택적 신



호표시기, 광학 보안필터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강동규 박사과정 학생은 지금까지 제1저자로 6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내외 학회에서 6건의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8년도에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Ph.D. 펠로우십에 선정돼 현재까지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전북도, 국비 140억원 확보

‘그린 뉴딜’ 핵심, 도내 69동 대상... 일자리 창출 기대

전북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그린 뉴딜)의 일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공공건축물 69동(어린이집 20, 보건소 47, 의료시설 1)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전주2, 군산5, 익산7, 정읍4, 김제15, 완주3, 진안1, 장수, 임실11, 고창3 등이고 사업비는 총 200억(국비 140, 지방비 60억) 규모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중 15년에서 30년미만의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에 대해 단열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기후변화대응에 필수적이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조명,

신재생에너지 등의 교체 및 설치로 에너지 절감과 함께 어린이집 원아들과 보건소 및 의료기관 방문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전북도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그린리모델링 기획자(7명)를 선정해 각 사업별로 설계 및 사업자문 등을 지원하는 등 설계 공사발주 및 일정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린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매우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는 민간건축물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정부 3회추경에 산 확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2,900억 규모(국비 2,07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이 같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1588-0700' 로

전북 콜센터 특별 운영

전북도가 정부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30일 까지 전북 콜센터(1588-0700)를 특별 운영해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별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금으로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분야 등을 선정하고 24일부터 신청 접수해 최대한 추석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는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에 "1588-0700 전북 콜센터"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배치해신청 자격, 신청 서류, 신청기관 등을 안내 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1588-0700 콜센터에 연락하면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지원사업인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안내 팝업창을 통해 직접 지원기관에 접속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먼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되면 23일부터 신청안내해 추석전에 지급하고 이후 이번 지원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안내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대해서는 추가 접수 기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항상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열린의정! 으뜸의회!

임실군의의회

축! 전주매일 창간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옥정호 봉어섬(외안섬)

천담구담마을

관촌 사선대

임실군의의회